어머니 마야부인 위한 부처님 설법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㉙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1

음력 7월 15일 우란분절이 다가오고 있다. 모든 업보가 담긴 항아리를 들어서 엎어 버리는 것이 우란분절이다. 또 일년에 단 한 번,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지옥문이 열리는 아름다운 날, 바로 지옥의 개점휴업일이다. 다겁생래에 지은 다양한 업보가 한 순간에 사라져 지옥문이 열리면 그 곳을 떠날 수 있는 날이 있다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이런 일이 연중행사로 있다고 하니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청정한 스님들, 즉 미래에 부처를 이룰 분들에게 공양을 올리며 오래전 세상을 떠난 그리운 이들을 위해 부처님께 기도한다. 스님들 역시 공양자와 그들의 선망부모의 왕생극락을 위해 자신이 한 철 동안 공부한 모든 공덕을 그들에게 돌린다. 지금쯤 모두 우란분절 기도를 이같은 마음으로 봉행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지옥에 반드시 간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안 갈 것이라 생각하다가도 지옥이란 말만 들어도 겁이 더럭 난다. 마음 한 켠으로는 이 두려움이 새록새록 살아나지만 애써 외면하거나, 혹은 작은 선행을 하며 공덕을 심었으니 괜찮을 것이라 자신을 위로하기도 한다. 이 두려움에 대해 잘 알고 계셨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한 분을 소개시키니 바로 지장보살이다. 이 분은 지옥길을 동행하며 그 곳에서 우리가 영원의 지옥 속에 빠지지 않도록 '이 곳은 스쳐 지나가는 곳' 임을 알려주시며 매 순간 지옥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지옥에서 고통 받는 이들을 다 구해낼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원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라서 '대원본존(大願本尊)지장보살' 로 그 분을 부른다.

지장보살이 전생의 삶속에서 세운 원력과 사연,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촉, 지옥을 벗어나는 법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지장경〉이다. 〈지장경〉의 본래 경명은 〈지장보살본원경〉으로 당나라 실차난타가 번역한 2권의 책으로 부처님이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하여 설법한 경이라 불교의 효경(孝經)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마야부인은 왜 도리천에 계시며, 왜 마야부인이 부처님을 만나러 오지 않고 부처님이 지상에서 천상인 도리천으로 가서 설법을 하게 되신 것일까, 바로 지장보살과 마야부인의 만남을 위해서다. 두 분 다 중생을 위해 자신의 성불을 뒤로 미룬 원력보살이니 부처님은 이들이 서로의 존재를 통해 중생의 모든 고통을 알게 하여 비원(悲願)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도리천의 설법을 시작한 것이다.

〈화엄경〉 '입법계품' 을 읽어보면, 53선지식 가운데 등각(等覺)의 42번째 선지식인 마야부인은 과거 전생에 도량신인 자덕(慈德)이었을 때, 보살이 부처되는 모습을 보고 난 뒤,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이 되시려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저로 하여금 그 분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게 해주소서.' 라는 발원으로 무수한 겁 동안 부처님들께 공양하며 기다려 온 인연으로 마야가 되어 싯다르타를 낳게 되었다. 싯다르타를 낳고 7일 후 자신의 소임을 마친 마야부인은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다음 생에 부처가 되실 보살들이 계시는 도리천에서 머물며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부처님은 그 숭고한 발원으로 자신을 사바세계로 인도한 어머니에게 지장보살을 소개한 것이다. 사바세계 중생들이 겪는 고통의 모습을 알려줄 지장보살을 등장시켜 어머니 마야부인으로 하여금 일체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더욱 커지도록 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해 설법의 장을 연다는 소문이 우주법계에 순식간에 퍼졌다. 각 세계의 부처님들이 '석가모니불이 이 험한 세상에서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 억세고 거친 중생들까지 고통이 사라지고 모두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전하려고 하시니 어서 모이시오!' 라는 소식을 전하자 각 처에서 온갖 광명구름과 아름다운 음악과 28천의 하늘세계 대중들과 우주에 있는 모든 이들이 속속 도착하였다. 그 때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문수여, 대단하지 않느냐, 이들을 다 보고 있느냐? 저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올지 아느냐?"

문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모른다고 한다. 부처님은 저 많은 이들은 바로 지장보살이 지옥에서 구제한 이들이라고 하자 문수는 놀라며 도대체 어떤 원력과 실천을 하신 분이기에 저토록 많은 이를 구하셨는지 여쭈었다. 〈계속〉

〈서울 반야사 주지〉

금강경 공부로 CEO 교육 가능하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㉘ 금강경의 현실적용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을 면하기 위하여 또는 자신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불자들은 종종 관음보살, 지장보살을 염송하거나 다라니를 지송하며 재앙 소멸과 소원 성취를 기원합니다.

불보살의 가피에 힘입어 각종 재앙을 소멸하고 무슨 소원이든 다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불자들도, 관음보살 염송이나 다라니 수행으로 무능한 사람이 능력자가 되거나 또는 범부가 성인(聖人)이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부가 변하여 성인이 되고 능력자가 되는 것은 탐진치(에고, 아상)를 소멸하여야 되는 것이며, 탐진치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하며, 마음 닦아 성불하는 문제는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타력 수행보다는 자력 수행, 예를 들면 참선 수행과 같은 자력 수행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금강경 공부는 핵심 진리인 '일체유심조' 나 공의 진리를 실천하여 마음속의 탐진치가 착각이요, 본래 없음을 깨달아 탐진치를 사라지게 합니다. 이때 부도덕한 사람이 도덕적이 되고 무능력한 사람이 능력자가 되며 무지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하여 밝아지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속의 번뇌는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탐심, 진심, 치심입니다.

탐심은 '어서 하겠다.' 고 설치는 마음으로 가장 원초적 번뇌이며 근본적 욕망입니다. 다음은 진심으로 '왜, 아니 되나?' 하며 짜증내는 마음입니다.

가장 고급인 욕망은 '이만하면 되었다.' 하는 마음 즉 치심이 되겠습니다.

욕망의 크기로 따진다면 탐심의 욕망이 가장 커서 사람의 눈에 잘 뜨입니다. 탐심의 색깔이 있다면 검은색입니다.

진심의 욕망은 탐심보다 그 크기가 작아 사람들의 눈에 덜 뜨입니다. 색깔로 표현하면 붉은색이나 누런색입니다. 가장 크기가 작아 사람들의 눈에 잘 뜨이지 않는 욕망이 있다면 이는 치심입니다. 치심을 색깔로 치면 눈에 잘 띄지 않는 흰색입니다.

수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 각종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벗어나는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닦는 과정에서 기본 욕망인 탐심이 가장 먼저 소멸되며 다음 해결 과제는 진심이요, 맨 나중에 미세하여 잘 보이지 않는 욕망, 즉 치심을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치심은 잘 알기도 어렵고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욕망을 해결하는 순서로서 세 등급의 사람으로 분류해 봅니다.

가장 낮은 등급은 근본적인 욕망, 즉 탐심을 해결하는 데 급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처님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요, 동물에 가까운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세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두꺼운 진심의 벽이나 치심의 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탐심, 즉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그 다음 욕망인 진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입니다.

진심의 욕망까지 해결한 사람은 탐심을 해결한 사람보다는 낫지만 아직 부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하겠습니다. 치심이라는 넘기 힘든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어느 정도 닦은 사람은 세상 부귀영화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욕망이 있다면 영원한 것에 대한 욕망, 자연의 비밀을 아는 것에 대한 욕망인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방거사와 '이 뭣고'

하루는 방거사가 큰 신심과 용기를 내어 석두 선사를 친견하고, 불여만법위여자(不與萬法爲如子) 시심마인(是甚麽人) 잇고? 라 물었다.

해석하면 "만 가지 진리의 법으로 더불어 벗을 삼지 아니하는 자, 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니, 석두 선사가 그 즉시 방거사의 입을 틀어 막아 버렸다. 여기서 방거사는 홀연히 진리의 눈이 열렸다. 다시 방거사는 그 걸음으로 수백리 길을 걸어서 마조 선사를 친견하고, 석두 선사와 같이 물었다. 마조 선사께서 일구흡진서강수(一口吸盡西江水) 즉향여도(卽向汝道)하니, 즉 "그대가 서강수(西江水) 큰 강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오면 일러 주리라" 하는 이 한 마디에 어하대도(言下大道)하여 마조 선사의 제자가 되었다.

그 후로 방거사는 집으로 돌아와 대대로 물려온 전답(田畓)을 이웃들에 나눠 주고, 가보(家寶)와 전 재산을 큰 배에 가득 싣고 가까이 있는 동정호(洞庭湖)에 수장 시키자, 사람들이 방거사에게, "그 많고 귀중한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는가?"하고 아쉬워 했다. 그러자 방거사는 "내가 수행에 큰 짐이 되는 집착의 애물단지를 남에게 되돌려주어서 되겠는가?"라고 답했다.

그 후 자신은 수백명을 거느린 장자로서의 호화로운 생활을 버리고 가족과 함께 산으로 가 오두막을 지어놓고 산죽을 베어다 쌀을 이는 조리를 만들어 팔아서 생활하면서, 온가족(부인과 딸 영조)이 참선 수행에 몰두하였다.

하루는 단하천연(丹霞天然) 선사가 방거사를 찾아 왔는데 마침 딸 영조가 우물서 채소를 씻고 있었다. 단하천연 선사가 "방거사 있느냐?" 물으니, 영조가 일어나서 양손을 가슴에 얹고 가만히 서 있었다.

"단원공제소유(但願空諸所有) 신물실제소무(愼物實諸所無) 호주세간(好住世間) 개여영향(皆如影響)"이라. 이를 설명하면 "다만 있는 것 비우기를 바랄지언정 없는 것들을 함부로 채우지마라"이다. 이는 그 유명한 방거사의 임종게이다.

단하천연 선사께서 즉시 그 뜻을 아시고 어떻게 나오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 "방거사가 있는가?"하고 재차 물으니, 딸 영조가 가슴에 얹은 양손을 내려 채소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집안으로 들어가 버리니 이에 단하천연 선사도 즉시 되돌아 갔다.

말이 없는 가운데 말이 분명하니, 이런 문답(問答)을 바로 볼 줄 알아야 진리의 고준한 안목을 갖추게 되고 만 사람을 도(道)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날 방거사가 가족과 함께 방에서 쉬고 있다가 한 마디 던지길 "나나난(難難難) 어렵고도 어려움이여, 높은 나무 위에 일백석이나 되는 기름통의 기름을 펴는 것과 같구나"고 하니, 부인이 그 말을 되받아서 "이이이(易易易) 쉽고도 쉬움이여, 침상에서 잠자다 내려오는 것보다 쉽도다" 고 하며 "명명백초두(明明百草頭) 명명조사의(明明祖師意)"라 즉 일백가지 풀끝이 모두가 불법의 진리 아님이 없구나라고 하였다.

이에 딸 영조가 야불난(也不難) 야불이(也不易) 즉 어렵지도 쉽지도 않음이여, 기래끽반(飢來喫飯) 곤래면(困來眠) 즉 피곤하면 잠자고 목마르면 차를 마신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불자들께서도 생활 속에서 방거사와 같이 일체처 일체시에 '이 뭣고' 화두와 함께 공부를 꾸준히 하신다면 금생에 기필코 생사의 고해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은 방거사의 임종게를 소개하며 강의를 맺는다.

"단원공제소유(但願空諸所有) 신물실제소무(愼物實諸所無) 호주세간(好住世間) 개여영향(皆如影響)"이라. 이를 설명하면 "다만 있는 것 비우기를 바랄지언정 없는 것들을 함부로 채우지마라"이다. 간화선을 재창한 대혜종고 선사도 이 구절만 지우지 않는 다면 평생 참선하는 일을 마친다고 하였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